

# 마음, 언어, 행위

## - 인지-행동주의 기호언어학을 위한 소고

윤성노\*

### 【 차례 】

- I. 서론
- II. 기호는 무엇에 쓰이는가?
- III. 결론

### 국문초록

본고의 목표는 마음과 행위가 기호로 매개된다는 비고스키의 아이디어를 언어 분석에 적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야콥슨의 일반 소통 도식을 코드와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한 다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미 생산 및 해석에 있어 ‘소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윌리엄 라보프의 이중모음 변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발음과 의식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예로 의미론적 제약, 외재적 의소, 해석소, 공시적 의소 따위의 의미현상들을 고찰한다. 결론부에서는 마음, 행동, 그리고 언어 사용 환경을 아우르는 총합적 시각이 기호학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선택지임을 역설하며, 언어가 왜 ‘동기화된’ 기호체계인지 논증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열쇠어 : 매개, 맥락 적절성, 해석소, 소음, 암묵적 연상

---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I. 서론

## 1. 문제 제기

필자가 보기에 기호학 관행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소쉬르는 일찍이 기호에 대한 학문(기호론)을 일반 심리학의 하위 분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랑그를 구조화하는 원리들을 연구할 때 언어기호가 기호 사용자의 마음이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개인에 의해 랑그가 빠롤로 변용될 때 그 원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랑그/빠롤/언어활동(langage) 혹은 시스템/시스템 사용자/시스템 사용 환경(Umwelt) 중 하나를 선택·집중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구조주의 비판 시 접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는 기호를 규정함에 있어 소쉬르가 기호 사용자와 지시체는 배제한 채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위 “엄격한” 구조 개념이다. (하지만)『일반언어학강의』 초판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소쉬르가 지시체의 속성을 참조해서 어휘 분석을 시도하는가 하면, “단어 뒤에 숨은 단어들”(anagrammes)을 연구할 때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해석의 관점에서 랑그와 빠롤을 관통하는 통합 언어학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른바 “네오 소쉬르주의”이다.“

흰색 지팡이를 예로 들자면, ‘언어에는 차이만 존재한다’는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를 토대로 변별적 자질의 유무(유무표성markedness)에 따라 지팡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코드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초

---

1) 윤성노,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구조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179쪽.

기 기호학의 관심사다. 흰색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유표성)은 ‘시각장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이고, 무표성, 즉 흰색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호학적으로 무의하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언어에는 왜 차이만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기호체계 자체를 목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체계를 구조화하는 소극적 가치의 원인을 찾는 일은 ‘외재적’ 요소들을 참조하도록 하므로 기호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코<sup>2)</sup>가 지적하듯, 거짓말 도구로서 흰색 지팡이의 기호적 정체성을 논할 수도 있다. 비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를 사용할 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메시지 수신자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세미오시스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더 복잡하고 흥미로울 수 있다.

코드의 관점에서 세미오시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흰색 지팡이를 ‘시각장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 간주하지만 기호-전달체는 흰색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지팡이 사용자다. 거짓말 도구로 흰색 지팡이를 사용할 때 기호-전달체에 부호화된 의미는 의사코드(pseudo code)에 기반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흰색 지팡이의 부재가 반드시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동행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최첨단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안경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요지는 코드가 중층적이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로-기호도 있으며, 따라서 이처럼 확률 게임에 가까운 세미오시스를 오롯이 기술하자면 소극적 가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어로 마음이 매개되고 행동이 유도되는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움베르토 예코, 『거짓말의 전략』,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 2. 연구목표

관점이 대상을 규정한다는 것이 소쉬르의 가장 큰 교훈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점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 연구대상의 당위적 존재방식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신념이나 욕망)이 관점(방법론적 가정들)을 결정하며, 일련의 가정들을 토대로 그(그녀)가 기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기호체계의 구조적 자율성보다는 체계, 사용자, 사용 환경의 상호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관점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기호가 사용자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 자극”(mediating stimulus)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 비고스키(L. S. Vygotsky)의 인지-행동주의 언어관을 도입해 행위와 마음의 측면에서 기호현상을 논하고 의미 발생의 차원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둔다:<sup>3)</sup>

“비고스키의 입장에서 인간 의식의 핵심은 도구 사용, 특히 “심적 도구” 또는 “기호”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물리적 세계에서 매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방식은 간접적이며 기호로 매개된다. 이는 고차원의 심적 과정들을 정의하거나 그 발생을 이해할 때 매개라는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필자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디자인하는 이유는 이렇다. 기호학이 세상에 나온 지도 이미 한 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제도권 학문으로 공인된 적은 없고,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된 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 의미 전달체가 지향하는 (우리 자신과 세계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인접 학문

---

3) Wertsch, J. V., “Mediation” In H. Daniels, M. Cole, & J. Wertsc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ygotsk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78. 필자가 번역하고, 저자가 강조함.

들과의 협업을 통해 복잡성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체계 분석을 위한 조작적 개념들을 가다듬는 데에만 노력을 쏟아 부는 ‘엄격한’ 구조주의에 전착하는 탓은 아닐까? 어쨌든 이것이 본고의 현실 인식이며, 이에 따라 언어 사용 시 작용하는 마음, 언어로 유도되는 행동, 그리고 언어 사용 환경을 둘러싼 암묵적 문화정보에 주목하는 일 이야말로 오늘날 이론적 담보 상태에 처한 기호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학문적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랑그와 빠롤을 아우르는 네오 소쉬르 식 통합 언어학을 지향하고 그 일환으로 마음과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현상을 논하기 위해 필자는 ‘언어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sup>4)</sup>

“언어 이론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팀버젠(N. Tinbergen)이 제기한 다음 네 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언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mechanism), 사용자에게 언어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function), 언어는 어떻게 발달하는가(development), 언어는 어떻게 진화했는가(evolution)의 문제이다.”

## Ⅱ. 기호는 무엇에 쓰이는가?

### 1. 일반 소통 도식

야콥슨<sup>5)</sup>의 일반 소통 도식에 따르면,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약호체계, 맥락, 접촉이라는 여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각각 요소에는 하나의 기능이 상응하므로 언어에는 총 여섯

4) 윤성노, 「말, 오른손잡이, 망치질 -상징화 능력에 대한 진화기호학적 연구」, 『기호학 연구』 47, 한국기호학회, 2016, 240쪽.

5) Jakobson, R., “Closing Statements: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0.

가지 기능이 있다. 발신자의 감정을 표시하는 기능, 수신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감적’(conative) 기능, 메시지 구조와 관련된 시적 기능, 암호체계를 드러내는 상위 언어적 기능, 발신자와 수신자를 접속시키는 교감(phatic) 기능, 소통의 맥락을 지시하는 기능이다. 여기에서는 코드와 맥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

### 1) 정보와 의미

메시지를 특정 정보매체로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해야 하는 암호체계(code)는 소통의 필요조건이다. 한국어 문법을 모르고서는 한국말로 소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코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코드를 공유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소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가령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청중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면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메시지 송·수신자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촉해 있어야 한다.

코드 자체가 소통의 주제인 경우도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당신에게 ‘한국어 단어 “한”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는다면, 그(그녀)는 언어를 통해 바로 그 언어의 의미구조를 지시한 것이 되는데, 이런 언어의 자기 회귀적(self-referential) 성격을 두고 야콥슨은 메타-언어적 기능이라 부른다. 그렇다고 메타 기능이 언어구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신세대들이 은어나 인터넷 신조어 등 구세대에게 생소한 표현수단으로 소통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하위문화 코드를 들러냄으로써 /우리/(내집단)와 /그들/(외집단)을 구분 짓는 메타-언어적 행위이다.

한편, 소통의 맥락을 고려한 메시지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미’(meaning)에 가깝다는 사실도 환기할 만하다. 그렇다면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에 대해 합의된 적은 없으며 그 개념 정의는 연구자가 따르는 이론 틀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 2) 문제점

상기 소통 도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수사학과 쉐넌과 위버<sup>6)</sup>의 정보통신 이론에 힘입은 바 크다. 공학적 소통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메시지를 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원형은 기계 대 기계 간 메시지 송수신 과정이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소통의 문제를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 게다가 말하기가 소통의 전부는 아니고, 설득이 말하기의 주된 이유도 아니다. 사실 메시지에 담긴 정보는 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 정보가 처리되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감안해 가며 함께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소통의 본질이다.

기호학적 사유에 많은 영향을 준 야콥슨의 일반 소통도식 (그리고 그것이 대표하는 서양식 소통관)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수신자의 피드백, 소통 주체들의 상호작용, 언어기호에 깃든 마음, 그리고 메시지 해석에 영향으로 주는 ‘소음’ 등을 오롯이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코드 중심 기호학 담론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대화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다. 사실 사람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소통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다. 오해는 소통의 일반적 양상이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발하는 촉매제이다, 단 그것이 몰이해와 상호배척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의 코드가 무엇인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부호화와 해독 사이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소통의 전제조건이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소음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

6) Shannon, C. E. & Weaver, W.,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 2. 소음은 마음을 향한 창

쉐넌과 위버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호화와 해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음은 중요한 의미 요소다. “물리적”, “의미론적”, “심리적” 소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자.<sup>7)</sup>

### 1) 유형

너무 시끄러워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건 물리적 소음 때문이다. 의미론적 소음은 메시지 내부에 있는 소통의 적이다. 청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나 은어를 섞어가면서 말할 때가 그렇다. 그리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종교적 신념 등이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심리적 소음이 그 원인이다. 요즘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가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politically incorrect) 어휘 선택이 소통의 단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 소음, 의미론적 소음, 심리적 소음으로 소통의 장애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필자는 여기에 ‘이문화적’ 소음을 첨가하고 심리적 소음을 ‘명시적’ 소음과 ‘암묵적’ 소음으로 구분해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문화적(cross-cultural) 소음이란 문화적 패턴 인식의 차이로 인한 소음을 뜻한다. 예컨대 서양 사람들은 대화 시 보통 서로 눈을 맞추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 문화동양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이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접촉할 기회가 증가일로에 있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문화 소음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다.

---

7) 오미영·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4-15쪽.

## 2) 암묵적 소음

암묵적 소음은 측정하기가 더 미묘하다. “암묵적 연상 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sup>8)</sup>를 예로 설명해보자. 이는 어떤 개념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더 강하게 연상되는지 알아보는 사회심리학실험으로,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령 백인 이름 혹은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 버튼을, 흑인 이름 혹은 나쁜 느낌을 주는 단어가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누르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반응시간을 체크한다. 그런 다음에 단어 쌍을 바꾸어 실험을 반복한다. 즉, 백인 이름이나 나쁜 단어 그리고 흑인 이름이나 좋은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단어 쌍이 지시하는 개념들(백인과 좋은 것, 백인과 나쁜 것, 흑인과 나쁜 것, 흑인과 좋은 것)이 더 강하게 연상된다는 뜻이다 (소쉬르 언어학의 핵심은 가치이론이며 그가 기호의 가치를 설명할 때 통합체적 대조관계와 함께 연합체적 연상 작용을 근본 원리로 간주한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이렇게 설계된 실험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 모두 명시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흑인에게서 자기 선호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하지만 IAT를 통해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백인은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보다 더 많이 백인을 좋아하고 흑인은 흑인보다 백인을 더 선호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흑인이 암묵적으로 자신이 속한 ‘인종’보다 그렇지 않은 인종을 좋아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sup>9)</sup>:

---

8) Greenwald, A. G., Poehlman, T.A., Uhlmann, E.L., Banaji, M.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2009.

9) 로버트 트리버스,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 진화생물학의 눈으로 본 속임수와 자기기만의 메커니즘』, 이한음 역, 살림, 2013, 114-115쪽.

“이것은 강요된 자기기만의 특징이다.” (...) 따라서 역사적으로 지위가 낮았거나 멸시당했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종속된 처지에 있는 소수 집단은 부정적인 암묵적 자아상을 지니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헤게모니를 쥔 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투사하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틀에 박힌 관점을 소수 집단 스스로 내면화하며, 언어가 ‘종속된 정체성’, 즉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자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 자극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취업면접을 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흑인이고, 백인 면접관은 흑인과 나쁜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질문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심중팔구 낮은 면접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종속된 정체성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신의 장점이나 고유성이 면접관의 편향된 시선으로 희석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고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 연상이 배제된 어휘가 사용되는 면접 분위기라면 여러분의 수행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 3. 표현과 정체성

언어 사용 양상은 계층별로 다르다. 가령 프랑스 상류층 사람들은 /a/를 /ɑ/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비해,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보통 /a/를 /ɛ/처럼 발음하기 때문에 “Paris”([pari])가 [pɛri]로 실현된다.<sup>10)</sup> 그렇다면 동일한 음성기호가 왜 상이한 이음들(allophones)로 나타나는가?

변이사회언어학(variationist sociolinguistics)의 선구자인 윌리엄 라보브는 1963년 발표된 석사학위논문<sup>11)</sup>을 위해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

---

10) Ager, D., *Sociolinguistics and contemporary fren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1) Labov, W.,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9(3), 1963.

(Cape Cod) 남부에 위치한 Matha's Vineyard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life, light, white 등의 이중모음 [ai]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조사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조사 대상자가 관찰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하는 발음 이야말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 조사 항목인 이중모음을 포함한 단어를 사용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안했다. 사회학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내용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 1) 발음과 의식

먼저 해당 이중모음이 [ai]나 [əi]로 발음되며, 전자는 섬과 인접해 있는 보스턴에서 발음되는 변이형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섬사람들의 발음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별 이중모음 분포 상황보다 더 흥미로운 건 섬 주민들이 자신들의 섬이나 섬에 오는 외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발음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특히 30-45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중설음화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직업군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어부들이 가장 많이 [ai]로 발음했다. 그리고 이런 연령층과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애향심이 깊고 외지인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토착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경제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섬에 남기로 마음먹은 젊은이들이 섬 방식의 발음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섬에 남고자하는 학생은 [ai]로 발음하는데 비해, 졸업 후 섬을 떠날 생각을 하는 학생은 보스턴 방음방식인 [ai]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발음과 의식의 상관관계 내지 암묵적 연상을 보여주는 이런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2) 행위와 평판

사람들은 보통 도시풍의 발음(여기에서는 보스턴 발음)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따라야할 바람직한 발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시골풍의 ‘촌스런’ 발음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변이형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의식은 “알려진 명성”(overt prestige)이라 불린다. 하지만 알려진 명성 개념으로는 촌스런 발음이 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대신 “숨겨진 명성”(covert prestige)에서 그 동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숨겨진 명성이란 사회적 평가가 낮은 형식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의식을 뜻한다. 섬사람들이 ‘촌스런’ 발음을 고수하는 이유 역시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발음이 오히려 바람직한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섬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고 섬 생활 방식과 관련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도시보다 시골이 더 나은 삶의 형태다’)를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학들의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Matha's Vineyard 섬 주민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알려진 명성과 숨겨진 명성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관계 내지 헤게모니 싸움이, 해당 섬 주민들의 경우에는 life, light, white 등의 이중모음을 [ɔi]로 발음할 지 아니면 [ai]로 발음할지, 프랑스 노동자의 경우라면 /a/를 /ɛ/처럼 발음할 지를 일정 정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Matha's Vineyard 섬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언어형식(‘촌스런’ 발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투사하는 자아 이미지를 거부하고 섬 주민으로서의 ‘자주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백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좋은 것을, 흑인과 관련된 단어는 나쁜 것을 더 강하게 연상시키는 언어에 노출된 흑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보다 자신을 억압하는 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종속된 정

체성)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고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정(accommodation)하거나 교정(correction)하는 방식으로 언어 사용자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신의 ‘페르소나’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내용단면과 맥락적절성

##### 1) 제약과 자유

“자동차가 밥을 먹는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의미론적 제약”(semantic restriction)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사 “먹는다”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먹을 수 있는 생명체(행위자agent)가 올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는 무생물이다. 또한 자동차는 먹지 않는다. ‘먹는다면’ 돌이 아니라 전기나 화석연료 같은 피행위자(patient)가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한다.

그런데 같은 문장을 은유나 의인화처럼 수사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 또는 해석 시 일상 언어 사용 때와는 다른 유형의 의미론적 제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자동차가 말하고 화석연료 대신 돌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붉은 여왕(Red Queen)이 앨리스와 양고기를 서로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나온다:

붉은 여왕 : “양 다리를 소개하지. 앨리스, 이쪽은 양고기! 양고기, 이쪽은 앨리스!” (양고기는 접시에서 일어나더니 꾸벅 절을 했다. 앨리스는 무서워해야 할 지 우스워해야 할 지 몰라 마주 절을 했다.)

앨리스 : “한 조각 드릴까요?” (앨리스는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 들고 두 여왕에게 물었다.)

붉은 여왕 : “당연히 안되지!” (붉은 여왕이 단호히 말했다.) “소개받은 이를 칼로 자르는 건 실례야. 고기를 내 가라!”

현실에서 양고기는 보통 생기 없는 피행위자(먹거리)로 지각되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는 살아 있는 행위자로 묘사되고 있다 (“양고기는 접시에서 일어나더니 꾸벅 절을 했다”). 그런데 앨리스는 인간의 속성이 부여된 양고기를 여전히 먹거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기 마련이다. <이상한 나라>의 규범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물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고기 한 조각 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다. 붉은 여왕이 양고기에 감정 이입하지 못하고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앨리스를 꾸짖는 이유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앨리스가 현실의 식탁에 차려진 양고기 요리를 보고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에도 양고기를 생명이 없는 식재료가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받는 인격체로 보기 때문인데, 이는 ‘먹을 수 없는’ 양고기를 권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구조의미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앨리스에게 양고기는 ‘생명이 없고’, ‘식용 가능한’이라는 종속의소(generic seme)로 그 의미론적 존재가 규정되던 상태에서 ‘생명이 있고’, ‘식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위상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생긴다. /식용성/ 같은 의소가 왜 여기 현실 세계에서는 켜지고 토끼 굴 저 넘어 ‘이상한 나라’에서는 꺼지는 걸까?

## 2) 외재성

잠재화된 의소와 해석소를 포함하는 외재적 의소(sèmes afférents)가 등장하는 대목이다.<sup>12)</sup> 라스티에는 해석소를 “해석을 통해 연결된 단위들

12) Camino Á. C., Flor M. B., Maria L. D.(éds), *Liens linguistiques: études sur la combinatoire et la hierarchie des composants*, Peter Lang, 2010, pp.137-139; <http://www.signosemio.com/rastier/semantique-interpretative.asp>

사이에 관여적인 의소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언어학 혹은 기호학적 맥락정보<sup>13)</sup>로 규정하며, “잠재화된 의소란 맥락이 주어졌을 때 관습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의미자질이다.”<sup>14)</sup> 한편, 포티에에 의하면 잠재소(virtuème)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결합적 연상”<sup>15)</sup>과 연관되는 “공시적 의소”(sèmes connotatifs)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문제는 ‘경험’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사실 공시는 파악하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내가 “당신은 참 진보적이군요!”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진보란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적 정의(denotation)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이 배제된 추상적 개념이다. 내가 보수 여당 당원인지,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지, 혹은 높아진 기술 수준과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동일시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문장이 칭찬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추상적 개념으로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 ‘칭찬’이나 ‘조롱’이라는 개념이 단어 “진보”의 기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라는 용어가 체계적으로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집단이나 사회에서는 ‘비난’, ‘조롱’, ‘무질서’ 등 부정적 개념들이 기의 구성성분으로 편입되어 있고, 심지어 사전적 의미를 몰아낼 수도 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가 호의적으로 평가받는 언어공동체에서는 ‘사회에 이로운 것’과 동의어처럼 사용될 것이다.

13) Rastier, F.,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p.222.

14) 윤성노,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구조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187쪽.

15) Pottier, B.: Schulz, P., *Description critique du concept traditionnel de <<métaphore>>*, Peter Lang, 2004, p.43에 재인용.

중요한 건 공시가 본질적으로 개인적 취향, ‘정서’, 해석 규범, 소통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의미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sup>16)</sup>는 표현단면이 이미 하나의 기호인 공시를 핵심 장치로 하는 기호학(‘신화론’)을 활용해 뻔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탈신화한 바 있다.

공시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수신자에게 뜻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내가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당신은 참 진보적이군요!”라고 말했다면 공시는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에 동원된 것이다. 하지만 청자가 말투, 악센트, 어휘 선택, 의상 스타일이나 태도 등을 토대로 화자의 성향, 출신배경, 교육 정도, 직업군 등을 가늠할 수도 있다. 이때 화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 “사회적 표지들”(social markers)<sup>17)</sup>은 커뮤니케이션 의도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지표처럼 기능한 것이다, 증후가 질병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점에서는 공시는 개념과 지각, 의식과 무의식, 의도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의 경계에 있다.

### III. 결론

#### 요약

필자는 먼저 인지적 차원에서 소음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소통이 저해될 때의 심리적 소음을 명시적 소음이라 한다면 암묵적 소음은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소통의 장

16)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서울 : 동문선, 1997.

17) Laver, J. and Trudgil, P., “Phonetic and linguistic markers in speech”, in K.R. Scherer and H. Giles (eds.), *Social Markers in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Paris: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79.

애물이다. 또한 공학적 소통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음이 정보량 감소의 원인이라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적응하고 조율해야 할 중요한 의미 요소임을 강조했다. 한편, 알려진 명성과 숨겨진 명성을 구분함으로써 언어 사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이 언어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설명했으며, 외재적 의소와 공시적 의소를 통해 경험이나 세상에 대한 도식화된 지식이 언어의 의미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았다. 언어기호는 이처럼 소음, 변이음, 가치 평가, 사회-심리적 평판 등을 통해 사용자 집단과 사용 환경 사이에서 자기조직하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변화발전’<sup>18)</sup>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내용을 토대로 필자는 자의성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기호에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유럽 대륙 기호학의 전통 속에서 자의성이 기호체계의 제1 구성 원리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소쉬르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과학적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르는 학문논쟁에서 ‘창시자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점,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리자면 패러다임이며, 이에 따라 연구자가 아니라 일상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언어기호현상을 바라보고 (파리기호학과의 표현을 따르자면) 의미의 생성에서 발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한다면 연구대상은 사뭇 달리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고에는 암묵적 연상, 이중모음 변이, <이상한

18) “모든 기호적 체계를 기술하는데 따르는 근본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체계가 그것 외부, 즉 체계 외적인 세계와 맺는 관계이며, 두 번째는 정태성이 역동성과 맺는 관계이다. 후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체계는 어떻게 그 자신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변화발전할 수 있는가?”(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연구』44, 한국기호학회, 2015, 326쪽에 재인용.)

나라>의 양고기, 공시적 의미 현상을 검토해보았다.

한편으로는 백인과 좋은 것, 다른 한편으로는 흑인과 나쁜 것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당신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따라서) 면접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라보브의 연구는 졸업 후에도 Matha's Vineyard 섬에 남고자하는 고교생은 [əi](섬 발음)로 발음하고, 떠나고자 하는 학생은 [ai](보스턴 발음)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전자가 ‘촌스런’ 발음을 고수하는 이유를 그는 숨겨진 명성, 즉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발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섬 생활 방식에 대한 신념 등을 드러내기 위해 저평가 받는 발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한편, <이상한 나라>의 양고기는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먹거리로 범주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고기 한 조각 드릴까요?”가 그곳에서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물론 필자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완벽한 문장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자의적이지 않다. 주어진 가능 세계(현실계 또는 이상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양고기)을 바라보는 관점이 언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참 진보적이군요!”라는 문장 역시 화자의 정치적 견해나 진보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찰데이터로부터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사회-문화적 변수들(언어 변종에 대한 평가, 화자의 위상이나 권위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이 취하는 태도, 암묵적 연상에 반응하는 양상, 여러 가능세계들(실상, 가상, 허상 등)의 상호침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용인도 등)이 일정 부분 표현형식을 결정하고 형식이 행위를 매개하며, 언어와 의식 그리고 행위 사이에 이렇듯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기호는 ‘동기화’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로버트 트리버스,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 진화생물학의 눈으로 본 속임수와 자기기만의 메커니즘』, 이한음 역, 살림, 2013.
-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서울 : 동문선, 1997.
- 오미영 ·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윤성노, 「말, 오른손잡이, 망치질 -상징화 능력에 대한 진화기호학적 연구」, 『기호학 연구』 47, 한국기호학회, 2016: 237-267,
- \_\_\_\_\_,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구조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177-202.
- 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 Ager, D., *Sociolinguistics and contemporary fren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Camino Á. C., Flor M. B., Maria L. D.(éds), *Liens linguistiques: études sur la combinatoire et la hierarchie des composants*, Peter Lang, 2010.
- Greenwald, A. G., Poehlman, T.A., Uhlmann, E.L., Banaji, M.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2009: 17-41.
- Jakobson, R., “Closing Statements: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0: 350-377.
- Labov, W.,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9(3), 1963: 273-309.
- Laver, J. and Trudgil, P., “Phonetic and linguistc markers in speech”, in K.R. Scherer and H. Giles (eds.), *Social Markers in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Paris: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79.
- Rastier, F.,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 Shannon, C. E. & Weaver, W.,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Schulz, P., *Description critique du concept traditionnel de <<métaphore>>*, Peter Lang, 2004.

Wertsch, J. V., “Mediation” In H. Daniels, M. Cole, & J. Wertsc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ygotsk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78-192.

<http://www.signosemio.com/rastier/semantique-interpretative.asp>

## Mind, language, behaviour

—preliminary studies for semio-linguistics of cognitivo-behavioral nature

Youn, Sung-No

This paper develops the Vygotskian idea of sign as mediation and applies it to language analysis. For that matter, it begins critically discussing Jakobson's general schema of communicat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oise in face-to-face human communication. We then review Labov's representative socio-linguistic researches of 1963 in giving attention to relations between language and consciousness. In the same line of thinking we deal with problems of contextual relevance. A dialogue of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hen allows us to talk about phenomena such as semantic restriction, afferent seme, interpretant, connotative seme. On conclusion the heuristic perspective will be put forward for interrelationship among mind, language, behaviour so as to explain why language is 'motivated'.

Key words : mediation, contextual relevance, interpretant, noise, implicit association

투고일 : 2016. 08. 10. / 심사일 : 2016. 08. 15. / 심사완료일 : 2016. 08. 31.